

LG화학, 중국과 배터리 사업 협력

KBCSD, 한·중 CEO 라운드테이블 개최 ... 에너지·IT산업 동력 발굴

한국과 중국이 신 성장동력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 회장 허동수 GS칼텍스 회장)는 7월15-16일 중국 베이징(Beijing)에서 중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CBCSD: 회장 왕지밍 전 Sinopec 총계)와 제1차 한국-중국 지속가능발전 CEO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시대 신 성장사업 협력을 통한 대도약> 주제로 한국과 중국의 정·재계 리더들이 환경·에너지 분야 협력 및 교역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동수 회장은 개회사에서 “새롭게 출범한 한·중 지속가능발전 CEO 라운드테이블이 에너지·기후, 고부가 IT산업 등 신 성장동력 분야에서 양국의 수요를 발굴하는 민관 플랫폼이 되길 기대한다”며 “사업모델을 공동 개발하고 합동 프로젝트를 운영함으로써 신규시장 창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 대표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쑤웨이 기후변화 국장과 한국 대표인 환경산업기술원 김용주 원장이 새로운 기후체제 확립과 환경기술 실증사업 등에 대해 발제했으며, LG화학 박진수 부회장이 전기자동차 배터리·ESS(Energy Storage System) 분야의 에너지 솔루션 전략을 발표했다.

라운드테이블에는 허동수 회장과 박진수 부회장, 허명수 GS건설 부회장,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 신문범 LG 전자 중국법인장 등 대기업 CEO와 김정수 주중대사,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중국 측은 장젠화 Sinopec 수석 부총재, 우동잉 Baosteel 경제연구소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5/07/16>